

“십자가의 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나라 구하자”

홀리톤장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 거행

홀리톤장로교회(황인철 목사)가 6일 오전 10시에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드렸다.

가화만사성(로마서 14:15-20)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노진걸 원로목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빠지지 쉬운 것 중의 하나가 자기 의로움에 빠지는 것이다.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성령께서 주시는 판단력과 지혜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가 50년의 역사를 오는 동안 지금까지 한결같이 섬기신 분들이 있다. 그분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교회가 지탱되어 온 것”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힘이 있으면 약자를 괴롭히고 누르는데 쓰지 말고, 사랑과 십자가의 힘

으로 약자를 섬기는 데에 쓰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주로 모시고 겸손히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의 자리에서 왕노릇하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홀리톤장로교회가 십자가의 의로움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구하며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황인철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임직식에서 권면을 한 황천영 목사(다우니제일교회 원로목사)는 “이 땅에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임한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홀리톤장로교회를 더욱 세워나갈 것이다. 이웃교회와 세계교회와 연합해 일하는 것은 복음적인 교회만이 할 수 있다”라면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예수



홀리톤장로교회가 6일 오전 10시에 창립 50주년 기념 감사예배 및 임직식을 드렸다. © 기독일보

를 위해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언제나 섬기는 마음으로 종된 자세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창립 50주년에 임직식을 거행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했다. 임직자 대표로 답사를 한 허용석 장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

광을 올려 드린다. 한없이 부족한 저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순종하고 담대히 나가겠다”며 “주님만 의지해 나가겠다. 직장과 가정,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새로워지며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했다. 이날 장로 1명, 집사 6명, 권사

10명이 새롭게 임직했다. 교회는 이날 오후 4시에 이웃과 친지들을 초청해 감사 음악예배를 드리고 50주년을 넘어 새롭게 나갈 것을 다짐했다. 홀리톤장로교회는 하나님을 향해 열린 교회, 세상을 향해 열린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美 정신 건강 위기, 성경적 세계관 결핍이 원인”



©pixabay

미국인들의 정신 건강 위기는 화학적 불균형 등 흔히 알려진 원인보다 성경적 세계관의 부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조

사 결과가 나왔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애리조나크리스천대학교 문화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

불안, 우울증, 두려움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의 증가 원인은 ‘심리적 또는 화학적 불균형’이라기보다 ‘세계관의 결핍’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1월 18세 이상 미국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하며, 95%의 표본오차와 ±2%의 신뢰수준을 보인다.

보고서는 “Z세대의 56%와 밀레니얼 세대의 49%가 정기적으로 불안, 두려움 또는 우울증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Z세대는 미국 성인 중 가장 어린 그룹을, 밀레니얼 세대는 1984년에서 2002년 사이에 태어난 그룹을 지칭한다. 이 세대

의 성인 3명 중 1명은 진단 가능한 정신 장애를 최소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었다. 문화연구소(CRC)는 성경적 세계관을 “성경적 관점에 비취 현실을 경험하고 해석하며 대응하는 수단”으로 정의한다. CRC는 일련의 신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개인의 성경적 세계관을 평가한다.

조지 바나(George Barna) 소장에 따르면, Z세대의 1%와 밀레니얼 세대의 2%만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정신 건강 문제와 성경적 세계관의 부족 사이에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며 “사실보다 감정을 더 신뢰하고, 삶에 내재된 가치를 보지 못하며, 카르마를 믿고, 성경적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젊은 성인은 드물지 않

다”고 덧붙였다. 바나 소장은 “여기에 목적이나 의미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고, 진실은 주관적이라는 생각이 더해진다”며 “이러한 공통적인 구성 요소는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럽고, 희망이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초래한다. 불안, 우울증, 두려움은 그러한 삶에서 사실상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바나 소장은 청년들의 정신적 불안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몇 가지를 꼽았다. 40세 미만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은 삶에 명확한 목적이 없다고, 신을 거부하는 5명 중 4명은 두려움과 불안을 자주 경험했다고 했다. 바나 소장은 “이러한 공통적인 세계관 구성 요소에서 비롯된 라이프스타일은 혼돈과 두려움의 결과”

강해진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언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평가상가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일일 공개 세미나

금번 Dunamis Sophia University 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하여 교회와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제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의 강사분들을 모시고 일일 공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세미나에 귀중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제 : 성경적 제자의 도(Biblical Discipleship)

- 일 시 : 2024년 11월 5일(화) 9:30AM~4:10PM
- 장 소 : 새누리 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 강 사 : 박성근 박사, 이순정 박사, 김정원 박사, 이윤호 박사
- 대 상 :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
- 연락처 : 714-732-3355(D. S. U.)
- 등 록 : 50명 제한(등록비 무료 & 점심 제공)



박성근 박사
 (새누리 교회 담임 목사)



이순정 박사
 (미국 작은 불꽃 선교회 대표)



김정원 박사
 (전 네비게이토 선교회 Staff, 새연약 교회 담임 목사)



이윤호 박사
 (두나미스 영성상담치유 연구원 원장)

‘위로’의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2024 밀알의 밤

장애인 선교단체인 남가주밀알 선교단이 주관한 '2024 밀알의 밤'이 '위로(이사야서 40:1)'란 주제로 10월 4일(금)과 5일(토), 6일(주일) 사흘 동안 ANC 온누리교회와 감사한인교회, 열반인 온누리교회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번 밀알의 밤 메인게스트는 가수 '하림' 씨였다. 다재다능한 싱어송라이터이자 공연기획자로 알려진 그가 밀알의 밤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가 무척 컸었는데, 역시 하림 씨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열정적이면서도 부드러운 가창력과 환상적인 악기 연주, 그리고 친근하고 세련된 매너로 무대를 완전히 휘어잡았다. <출국>,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여기보다 어딘가에>,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 등 본인의 히트곡들과 찬양 <보라 하나님은>을 키보드, 하모니카, 아이리쉬 휘슬 등의 악기 연주를 곁들여 한 곡 한 곡 온 힘을 다해 열창하는 모습은 그

가 왜 한국 최고의 만능 뮤지션으로 불리는지 스스로 증명하였으며, 그 주옥 같은 선율에 모든 참석자들은 열광하고 즐거워하였다.

밀알의 밤 공연이 자신의 미국 첫 콘서트라고 밝힌 하림 씨는 밀알의 밤을 통해 본인 마음에도 한 알의 밀알이 심겨져 새싹이 나길 소망한다는 인사말로 관객들로부터 커다란 박수를 받았다. 그는 노래를 부르는 중간중간마다 노래에 얽힌 재미나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주어 더욱 큰 흥미를 불러 일으켰으며, 아이리쉬 휘슬로 을 연주할 때는 남가주밀알 단원 '제시카송', '지련의' 자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해 감동을 더했다. 또한 '기타포아프리카', '국경 없는 음악회' 같은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사진을 곁들이며 자세히 설명해 관객들로 하여금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밀알의 밤 공연의 하이라이트 곡으로 부른 <위로>의 가사 "그대는 강하잖아요 하지만 약

하기도 하죠 아무도 몰라줬겠죠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겠죠"는 밀알 가족들의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대변해주어 더욱 가슴 깊이 와 닿았고, <위로의 말은 누가 해주나요> 역시 우리의 지친 마음을 포근히 감싸 안아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노래 제목 그대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다.

남가주밀알 사랑의교실 전 디렉터 'Laura Cho' 자매의 인터뷰로 진행된 사랑의교실 영상은 진실한 사랑과 섬김을 통해 장애인이 앞서고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는 밀알선교단의 비전과 이상을 표현하기에 충분했고, 올해도 바쁜 일상 속에



@밀알의 밤

서 수어찬양곡 <낮은 자의 하나님>을 열심히 연습해 최상의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인 '남가주밀알 수어찬양팀' 역시 진정 장애인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주었다. 선교단에 따르면 2024 밀알의 밤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5 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이다. 장학생 선발 과정과 장학금 수여식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작으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기 바란다고 선교단은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은혜한인교회 추계부흥성회, “신앙의 골든타임을 잡아라!”

10월 3일-6일(목-일)까지 은혜한인교회는 김문훈 목사(부산 포도원교회 담임)를 초청해 추계부흥성회를 개최했다.

부흥성회 둘째 날인 4일(금) 김목사는 마3:16-4:1를 본문으로, “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는 장면을 통해, ‘때’에 관한 신앙의 지혜를 나누었다.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다. 예수님의 골든

타임, 예수님 사역의 첫 시간이다. 우리가 시간을 애기할 때 골든타임이 있다.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한다. 그리고 축구를 보면 하프타임이 있다. 계획하고 실천하

고 평가하는 시간이다. 인생에 목표가 꼭 있어야 된다. 건강검진을 받듯이 인생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골든타임,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만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은 유통기한이 있다. 선교사도 황금기가 있고, 모든 건 시간 싸움이다. 우리의 연한을 아는 게 지혜이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유통기한이 굉장히 짧다.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할 때가 무르익어야 한다. 모세에게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애굽의 40년 광야의 80년의 필요충분한 기간이 있었듯 하나님은 타이밍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신앙의 형식 역시 중요하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형식을 지키시고 세례를 받으셨다. 형식을 지킬 때에 하늘문이 열린다.” 김문훈 목사는, 또한,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안 되면 반드시 다친 사람이 된다”며, 모든 것이 막혀도,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나누었다. “마음이 닫혀 있다면, 식물에 바람이 안 통하면 식물이 썩듯 사람도 그렇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가정의 앞길을 열어 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셔야 한다.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한다. 동서남북이 팽팡 틀어 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다 된다. 선교사님들이 이리저도 못하고 저리저도 못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 다 열리는 것이다.”

그는 하늘문이 열린 후, 성령이 임한다며,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조심해야 되는게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다. 범죄하고 난 뒤에 다윗이 두려워했던 건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성신을 거두는 것이었다. 성신을 거두어 가신 건 끝장난다는 것이다.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긴 뒤에는 어떻게 해도 야곱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붙들고 가야 한다.” 김 목사는, “하나님 주신 세월이 짧다. 70, 80 금방 지나간다. 주님 부르실 때 닥치는 대로 감당해야 한다. 그럴 때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품이라도 잡으면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라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김문훈 목사

→ 1면에서 기사 <美 정신 건강 위기...>에 이어서

라며 “그러나 성경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 중 많은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목적의식, 안정감, 평가가 제공된다”고 했다.

그는 “종교적 융합주의가 젊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세계관이다. 종교적 융합주의는 ‘다양한 세계관에서 도출된 상충되는 신념의 혼합’으로 설명되며,

이를 채택한 젊은 성인들 사이에서 불안, 우울증, 두려움이 만연하

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진리에 대한 견고한 기초가 없다면 그들의 삶은 일관성이 없고 혼란스러워진다”며 “반면 성경적 세계관은 감정적 안정을 촉진하는 틀을 제공한다. 일부 상황에서

는 상담, 처방약 또는 물리 치료와 같은 기존의 정신건강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정신건강 문제는 세계관 요소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한 성경적 세계관과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신념을 가진

개인의 정신 건강을 조사했는데, 정치적 참여와 기독교 신앙에서 모두 분리된 응답자 중 82%가 불안, 우울증, 두려움을 자주 경험했다고 한 반면, 정치와 신앙에 더 많이 참여한 응답자의 경우 67%가 불안, 우울증, 두려움을 경험했다고 했다.



NEW COVENANT ACADEMY



CELEBRATING 25 YEARS

AN IB WORLD SCHOOL

ENROLLING NOW! K-12

Voted #6 Best

Christian High School in CA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 487-5437
NCAHUSKIES.ORG

FOR MORE INFO



SCAN ME





- RIGOROUS ACADEMIC PROGRAM
- EFFECTIVE AND CARING TEACHERS
- SAFE AND NURTURING CAMPUS
- AFFORDABLE TUITION
- SOLID CHRISTIAN EDUCATION
- 100% UC ACCEPTANCE
- 10:1 STUDENT-TO-TEACHER RATIO
- WASC ACCREDITED
- SENIOR SAT AVERAGE: 1370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애나하임 큰빛교회, 창립 25주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 애나하임에 있는 큰빛교회(담임 조현영 목사)가 지난 10월 6일(주일) 창립 25주년을 감사예배를 드렸다.

조현영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는 기도 김은희 장로, 특별연주(클라리넷) 안건마 목사, 축사 최성범 목사 감리사(감리교단 오렌지카운티), 성경봉독 진형명 장로, 특별찬양 생명선 찬양대, 설교 조현영 목사, 연혁보고 윤희섭 장로, 감사패 전달, 격려사 필라델피아 교회 임승호 목사, 클라리넷 연주 안건마 목사, 헌금송 조안숙 사모, 봉헌기도 광성자 목사(남가주지방 회계), 인사와 공고 이중돈 장로, 축도 성영구 원로목사(큰빛교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성범 감리사는, “감사”라는 표현 말고 더 귀한 단어가 있으면 또 쓰고 또 써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날이 아닌가 싶다. 하나님



오렌지카운티 애나하임에 있는 큰빛교회(담임 조현영 목사)가 지난 10월 6일(주일) 창립 25주년을 감사예배를 드렸다. ©큰빛교회 Youtube

께서 함께하시는 참빛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성도님들이 마음을 함께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신앙교육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볼 때 존경의 마음을 담고 또 기쁨의 마음을 담아 축하드립니다”라고 축사

했다. 조현영 목사는 “설교,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요한복음 8장 29절)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 저는 금년에 목

회 40주년을 맞는다. 우리 큰빛교회가 세워진 지 25년이 됐는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한평생 붙잡고 묵회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며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세 가지를 하셨다. 하나는

말씀 선포, 두번째는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치유, 그래서 한평생 묵회하면서 저는 이 세 가지만 했다”고 말했다. “요새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사실 하면 있고, 안 하면 없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저희 교회는 시작하면서 선교에 매달렸다. 선교 없이 교회는 없다. 다른 말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아직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10불, 50불이라도 모아서, 지금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선교는 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윤희섭 장로는, “1999년 10월 30일 교회가 성립되는데 그때 같이 예배를 드렸다. 2000년 12월 23일에 이 자리를 바로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왔다. 그게 25년이 지났다”고 연혁보고에서 밝혔다. 임승호 목사(필라델피아 교회)는 초소에 대해 강조하며 격려했다. 토마스 맹 기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말씀의 세계로 빠져보세요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이 오는 10월 26일(토), 로스앤젤레스 미라클 LA 교회에서 이 열린다.

‘커피브레이크’는 단순한 성경공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통로

도자 워크숍은 전미와 세계의 많은 교회에서 셀,목장,순 등 교회 소그룹 리더십의 훈련 과정으로도 쓰임 받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소그룹을 왜 하며, 어떻게 인도해야 하는지, 커피브레이크만의 독특한 성경 학습법인 ‘



로 쓰임 받고 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대화하듯, 커피브레이크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말씀 속에서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다. 이 사업은 50여 년 전 칼빈신학교가 속한 북미주개혁교회(CRCNA)에서 시작됐지만, 지금은 전 세계 다양한 교단과 국가에서 사랑받는 초교파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편안하게 참여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전도 소그룹, 말씀 소그룹 사업이다.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

성경 발견 학습’을 통해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참여하시는 이들은 평소 하늘 나라에 대한 비슷한 꿈과 비전을 가진 이들과 교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장소 : 미라클 LA 교회 (3460 Wilshire Blvd, 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

문의 : 이광자 집사 760-672-5800 kaydoke70@gmail.com 김민선 기자

2024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의 기적!’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의 방송사역 후원을 위한 <2024 공개헌금의 날, 아름다운 동행>이 지난 10월 4일(금)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이번 행사의 이름처럼, 많은 이들의 참여를 통해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졌다. 모금된 헌금은, 목표했던 40만 달러를 초과한 \$418,032.13 (10월 5일 기준)로 집계되었다.

팬데믹 이후 불안한 경제상황과 이민성도와 교회 모두 어려움을 겪는 시기이기에, 목표액 달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그 우려가 무색할만큼 사방각지에서 찾아온 후원자들을 비롯해 전화, 온라인 후원으로 풍성한 결실이 가능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나 손주들이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길 기도하며 그들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사연이 많았다. 또,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천국으로 떠난 남편 이름으로 후원하는 이들, 모금에 직접 참여하는 어린 자녀들도 있었다.

이처럼 이번 행사는 다양한 세대에서, 특별한 의미를 담아 후원에 동참해 의미가 남달랐다. 12개의 부스에서 종일 훈훈



미주복음방송의 방송사역 후원을 위한 <2024 공개헌금의 날>이 지난 10월 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특별 생방송으로 진행됐다.

한 만남이 이어져갔다. 평소 애청하는 방송의 아나운서를 만나기 위해 부스를 찾아오거나, GBC를 통해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는다며 먹을 것을 전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사랑의 잔치’가 열렸다.

이영선 사장은 “공개헌금의 날을 진행할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게 되고,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에 늘 감격한 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믿음도 놀랍지만,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더 뚝뚝 뭉치고 서로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한인 성도들의 저력에 놀란다. 이렇게 모아주시는 헌금에 어떤 마음과 헌신, 기대가 들어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도록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겠다. 다시 한 번 아름다운 동행의 기적을 이뤄주시는 하나님과 그 선한 일에 쓰임받은 이민교회들과 성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모금된 금액은 송출타워 모기지 상환 및 노후장비 교체, 종합 미디어 도약을 위한 시설 및 인적 투자, 방송국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공개헌금의 날은 종료되었지만, 당일 참여하지 못한 이들의 헌금은 언제든지 방송국으로 연락해 전달할 수 있다.

문의는 미주복음방송 (714-484-1190) 으로 하면 된다.” 이윤준 기자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존재하는 아니며 서울메디칼 그룹의 모델임을 알려드립니다.



남가주장로협의회 주최로 선교사 돕기 '사랑의 찬양제'가 9월 29일 나성한미교회에서 열렸다. 찬양제에 찬양팀 9개팀이 참가하고 400여명 성도들이 참석해 은혜롭고 성대하게 진행됐다.

“수영로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 눈물이 고여 있는 곳”

[추계부흥성회] 건너가 차지할 땅, 김문훈 목사

10월 3일-6일(목-일)까지 은혜 한인교회는 김문훈 목사(부산 포도원교회 담임)를 초청해 추계부흥성회를 개최했다. 집회 셋째 날(10/5)인 토요일 김문훈牧사는 “건너가 차지할 땅”(신명기 11:8-12)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신명기에 나타난 축복에 대한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는 구절에 대해, 하나님의 축복은 정확성과 완벽성을 요구한다고 해석했다. “오늘 본문은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축복은 상당히 까칠한 축복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간간하고 섬세하시고 세밀하시다. 일본 오

사카에 집회가 있어서 방문했던 적이 있다. 공항에 저를 마중을 나온 선교사님이 차를 안 가지고 오셨다. 알고보니, 간사이 공항은 바다에 있고 바다와 그 오사카 지방을 잇는 다리가 두 개 있는데 다리가 하나 부서졌다는 것. 일본은 지진, 태풍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재난 매뉴얼이 잘 돼 있는데, 태풍이 올 때 배를 다리로부터 4~5 km 밖에 정박하는 규정을 따르지 않아서, 배가 다리에 충돌해 다리가 부서졌다고 했다.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선장이 복구 비용을 모두 물어줘야 했다.”

그러면서 편리 위주의 신앙생활에 대해 경계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렁뚱땅, 대충 대충 사는 걸 원치 않고 모든 명령을 지킬

복을 받는다고 하신다. 신앙생활을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편리주의, 실용주의로, 합리적으로 하면 안 된다.” 또한,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변화가 성전 정시기도 시간을 지키는 장면을 예로들며, 말씀과 신앙의 규례를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사람이 규모 있고 반듯하게 변한다. 겹세마네에서 잠을 이기지 못했던 베드로가 성령받은 이후 성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정확하게 올라간다.”

두번째로, 그는 축복을 ‘건너가는 것’으로 해석했다. “신앙생활은 ‘유월절’에서 볼 수 있듯, 건너가는 것이다. 건너가는 것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신앙을 통해 “물질의 한계, 감각의 한계, 지방의 한계, 교단의 한계를 확 뛰어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으로 미국 백악관의 차관보를 지낸 강영우 박사는 말씀으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세마교 육연구원 원장이자 미국 법무부 차관부 아들을 둔 현용수 박사 역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다.”

그는 방탄소년단의 청년들이 성장한 지역과 부산 수영로교회가 세워진 터가 ‘점프’라는 주제의 청년 집회가 일어났던 곳이었다고도 말했다. “BTS 정국이가 자란 만덕동은 아주 가난한 동네고 BTS 지민이는 회동동 출신이다. 그 동네는 그 수영만 매립지가 있던, 사람이 살 수 없는 뺨밭이었다. 수영로교회가 세워진 그 자리는 ‘점프’라는 주제의 청년 집회가 일어났던, 청년들의 눈물의 기도과 찬송이 고여 있는 곳이다.” 김문훈 목사는 자신의 삶 역시 그 건너가기의 연속이었다고 간증했다. “가난과 소외를 극복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가난을 뛰어넘고 지방의 한계를 뛰어넘고 교단

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었다. 제가 신학교 때 많이 울었는데 그때는 믿음이 좋아서 운 게 아니고 서럽고, 힘들어서 울었다. 눈물 총량의 법칙이 있더라. 젊어서 부끄러워서 창피할 때 많이 울어서, 그때 그 눈물이 그것이 변화를 시켜서 강단에서 사투리로 설교하는데도, 볼품 없고, 집안이 형편 없어도, 체력의 한계, 물질의 한계, 집안의 한계를 뛰어넘어 점프할 수 있다.”

“젓과 꿀을 차지하는 것은 소풍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라며, “가난한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목숨을 건 전쟁을 하는 것이다. 건너기 전에는 무서웠지만, 한계를 느낄 때마다 다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건너가고 지나가고 통과하고 난 뒤에는 웃으며 하게 되는 간증거리가 된다.” 주디 한 기자

팀 창 교수 옥스퍼드 강연, “핍박받는 북한 기독교인 위해 기도해야”

현재 리버티대학교에서 한인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1.5세 팀 창(Tim Chang) 교수가 이번 여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옥스퍼드 종교 연구 심포지엄에서 북한 내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팀 창 교수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1900년대 초에 평양이 “동방

의 예루살렘”으로 불리는 등 북한이 기독교가 크게 부흥된 지역이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기독교의 현재 부흥과 관련, 팀 창 교수는 1995년에서 1998년까지 북한에서 지속됐던 대기근 기간 10%의 북한주민들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살아남은 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갔다가 대기근 이후 돌아왔다고 설

명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내 복음이 크게 확산됐다는 것이 팀 창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중국에서 돌아온 많은 북한 주민들이 선교사와 전도사로 돌아와 친구와 가족에게 기독교를 전파했다고 보고했다.



김대원 기자 두만강에서 팀창 교수 ©팀창 교수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태양광, 솔라!! *** 전기세 50~90% 절감 ***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Lic#854389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80%

텍스 크레딧: 최대 30%
 감가상각: 최대 80% 적용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www.btssolardesign.com

LA: 2621 W. Olympic Blvd. #206 Los Angeles, CA 90006
213.500.8000
 OC: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714.702.0151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BTS Solar?

고객님들께 드리는 서비스 약속

- 최고의 서비스**
 잘 훈련된 전문직업자 팀이 최고의 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해 드립니다.
- 최고의 워런티**
 25 YEARS 고객님의 시스템은 언제나 안전합니다. 업계 최장 25년 워런티를 보장합니다.
- 최고의 제안가격**
 타사대비 25-40% 저렴한 가격으로 제안 드립니다.

BTSSolar

빠른 상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세요.

1. 최신 전기빌을 준비해 주세요.
2. 전기빌 1~4 페이지를 사진 찍으신 후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3. 확인 후 고객님께 별도 안내 드립니다.

무료 설치 서비스
 전기차에 필수인 240V 아울렛을 무료 설치 해드립니다.

백업용 배터리
 정전에도 끄떡없고 절약을 위한 옵션, 고객님들께 원가에 제공합니다.
 SCE 지역 필수 / LADWP 선택 옵션

초기부담 없는 \$0 다운부터
 풀 페이먼트 / 할부 결제 / PPA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LA동부지역 시니어를 위한 올바른 닥터

로렌하이츠/다이아몬드바/치노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센터메디컬그룹이 시니어전문 주치의를 모셨습니다.

센터메디컬클리닉 | 로렌하이츠점

송홍우 D.O.

가정의학과 전문의

스토니브룩 의과대학 레지던스
애리조나 대학교 레지던스 수료
미국 가정의학과 보드 인증 전문의
영어/한국어 이중국어



최상의 건강 관리를
약속합니다!

리셉셔니스트/LVN/RN 모집합니다.

센터메디컬클리닉 로렌하이츠점

월요일 - 금요일 | 8:30am - 5:30pm

(626) 363 - 4661

19115 Colima Rd, #105, Rowland Heights, CA 91748



센터메디컬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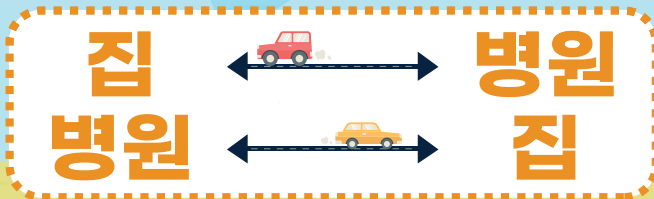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시니어 전문 케어

병원다닐
걱정 끝!

한인 유일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센터메디컬그룹 가입 환자만의 특별한 혜택



- 01 ▶ 센터메디컬그룹 가입 환자 혜택
- 02 ▶ 믿음직한 한국인 기사
- 03 ▶ 한국어 상담 가능

예약 문의 ☎ 714-980-3532

예약제 운영 / 사전 전화 상담 필수
상담 가능 시간: 평일 8:30AM - 5:00PM
지역과 상황에 따라 라이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감리교 역사, 고종 황제 선교윤허에서 시작”

기감, 8일 고종 황제 선교윤허 140주년 기념 학술제 개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종교교회(담임 전창희 목사)에서 고종 황제 선교윤허 140주년 기념 학술제를 개최했다.

홍석민 목사(국내선교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학술제는 △소요한 교수(감신대 한국교회사)가 ‘가우처(John F. Goucher)와 보빙사절단’ △서영석 교수(협성대 역사신학)가 ‘매클레이의 동아시아 선교 및 한국선교의 공헌’ △유은식 목사(제물포 문화아카이브 대표)가 ‘조선 부국강병 위한 고종 선교윤허 140주년의 한국감리교회와 대한민국(1884~2024)’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고, △장성배 교수(감신대 선교학)가 논찬했다.

◇ **가우처와 보빙사절단의 의의**
소요한 교수는 “가우처는 한국에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 시초가 될뿐 아니라 선교를 지속시켰던 인물로서 감리회를 정착시키고 발전시킨 인물”이라며 “그는 조선 후기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인한 보빙사의 미국 방문 시 기차 안에서 극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한복을 입고 갓을 쓴 보빙사를 보고 한국 선교를 타진한 이로서 나온다”고 했다.

이어 “가우처는 그의 생애를 마감하기 전까지 세계여행을 7차례나 다녀오게 되는데 이는 그가 후원했던 선교지 방문을 위한 것이었다”며 “마지막 7차례 여행에서 한국과 일본 방문을 진행했다. 그가 젊은 시절 한국에서 파견된 보빙사를 만나고 38년이 지난 1921년, 그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한국 방문 6번째였으며, 세계 마지막 순간까지 세계의 교구를 섬기는 열정적인 인물로

기억된다”고 했다. 소 교수는 “가우처 교육 철학은 오늘날 특히, 신앙과 사회적 책임을 결합하여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상은 현대 교계에서도 큰 의미를 줄 것”이라며 “또한 그가 추구한 교육과 신앙의 결합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모델로 남아 있다. 그의 사상은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했다.

이어 “한국 선교 140주년을 기념하며 고찰해야 할 것은 보빙사의 의의”라며 “먼저, 보빙사의 미국 방문으로 가우처가 기차 안에서 이들을 우연히 만나 것은 아니다. 가우처는 그전부터 한국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가우처가 신속히 선교를 시작할 수 있었던 배경도 이러한 관심과 동북아선교(한국 포함)를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둘째로 보빙사 구성원의 두 갈래·두 구성원 모두가 개신교 수용에 영향을 끼쳤다”며 “가우처-매클레이-김옥균(홍영식 및 급진개혁세력)-고종을 따르는 이들의 갈래가 개신교 전래에 토대를 마련했고, 감신정변으로 이 토대 위에 알렌-민영식-고종 노선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가우처-매클레이가 준비한 선교부지가 알렌의 사택부지로 대체되어 선교가 시작되었다는 점 등도 이를 말해준다”고 했다.

아울러 “마지막 셋째는 보빙사 구성원의 갈등이 한국인의 개신교 수용에 갈등을 일으켰다는 점”이라며 “단적인 예로 일본에서 한국 복음서를 번역했던 이수정(민영의-온건개혁파)과 감신정변의 실패로 일본으로 망명한 김옥균(홍영식·서광

범 등 급진개혁파)은 어느 한 시기에서 개신교 선교사의 성서번역을 중심으로 또 다른 충동을 일으켰고, 결과적으로 이수정-김옥균 등 현지인의 개신교 수용은 갈등으로 귀결되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했다.

◇ **매클레이, 한국선교의 개시 알린 개척자**

두 번째로 발제한 서영석 교수는 “한국 개신교는 대체로 1884년을 그 시작으로 잡는다”며 “왜냐하면 감리교 선교사 매클레이(R. S. Maclay)가 1884년 2주간(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선교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방한하였고, 9월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알렌(H. N. Allen)이 최초의 정주 선교사로 입국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목사와 선교사로서 매클레이는 거의 동아시아 즉, 중국·일본·한국의 선교 개척사역에 그의 전 생애를 끝없는 시련과 고난의 여정을 계속하여 고독한 길을 갔다”며 “매클레이가 왜 이렇게 고독하고 어려운 길을 갔는가. 그것은 바로 뜨거운 신앙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매클레이는 깊은 신앙을 소유하면서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삶을 살았다. 또한 중국, 일본은 물론 한국선교의 개척자 역할을 했다. 그는 선교사라는 직분을 감추지 않고 한국에 방문한 첫 번째 선교사”라며 “그가 방한하여 한국정부와 접촉하여 결국 고종의 허락을 받아 미선교사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개신교 한국선교의 개시를 알린 개척자의 역할을 했다”고 했다.

또 “매클레이는 개척단계에서부터 정착단계에 이르기까지 한국선교의 든든한 조력자이며 후원자였다”며 “노련한 동아시아의 선교사로서 경험이 풍부하고 엄청난 선교적 열정이 있었을 뿐 아니라 큰 성과를 거둔 매클레이의 능력이 한국에서 더욱 발휘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클레이는 공식적으로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라는 명예를 갖게 되면서 동아시아의 선교의 개척자로서 가우처와 함께 아시아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평



고종 황제 선교윤허 140주년 기념 학술제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가할 수 있다”고 했다.

◇ **위기 속 하나님의 손길 붙잡은 고종의 결단, 나라와 교회 세워**

다음 세 번째로 발제한 유은식 목사는 “광복을 이룬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정부를 갖추었으나 6.25 전쟁으로 세계 전쟁사에 기록을 남겼고, 분단국가에서도 부국강병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고, 2021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68차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공식 분류하여 일제의 침략과 6.25 전쟁으로 무너졌던 나라가 70여 년 만에 선진국으로 발돋움 되었다”며 “선교윤허로 입국한 선교사들과 함께 추구한 고종 부국강병의 의지는 짓밟힘 속에 무던히도 도전하였고, 고종의 죽음 이후에도 오늘의 21세기도 그 의지는 이어져 왔다”고 했다.

유 목사는 “140여 년 전, 속절없이 무어진 조선의 위기 앞에 조선 부국강병을 위하여 1884년 7월 2일 밤에 결단한 고종 프로젝트는 대한선교에 기초가 되어 오늘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이루었고 국가 운영에 기초가 되어 오늘의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이뤘다”며 “한국감리교회와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러한 기초에 힘입어 인재양성과 영적지도력 회복으로 윤리적 갱신과 역사인식을 이루어 남북 평화 통일은 물론, 고도 회복의 길을 향해 전진해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2025년 광복절 80주년을 준비하며, 올바른 세계관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 일환으로 7월 첫 주를 고종 선교윤허 기념 주일로 정하고,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은 고종의 결단이 국가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세운 그 첫날을 영원히 기

억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논찬을 한 장성배 교수는 “학술제를 통해 감리교 선교 역사가 고종 황제 선교윤허 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또한 그 배경이 되는 가우처, 매클레이 그리고 많은 주의 사람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선교의 큰 흐름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의 태도를 새삼 확인하게 된다”고 했다.

끝으로 장 교수는 “이제는 우리 차례다. 하나님께선 지금도 당신의 선교를 위해 세계의 흐름을 바뀌고 있다”며 “또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우리를 부르고 있다. 감리교회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개회예배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철 감독회장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교육과 선교 그리고 의료 체계가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열게 된 것은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윤허, 즉 교육, 의료, 전신, 교통이다. 이것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천민과 양민의 관계가 무너지며 새로운 질서를 여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이것은 선교와 동일한 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 왔고, 동시에 새로운 대변화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것”이라며 “이 사실을 기억하고 되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고종 황제 선교윤허 140주년 기념 학술제 진행 사진(왼쪽부터 소요한 교수, 서영석 교수, 유은식 목사, 장성배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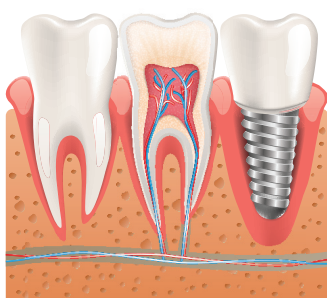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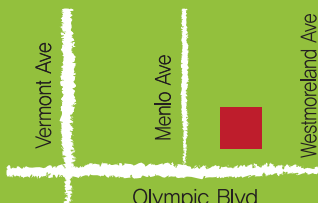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언어를 이해하고 한국어로 진행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11

1940 N. Bullis Rd. Compton, CA 90221(Worship Location)

곽찬훈 담임목사

Los Angeles One Church

2065 E 120th St. LA, CA 90059(Mailing Address)
 T. (213)273-6452 www.laone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박자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810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킴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주일예배/EM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목) 오후 7:00
 셀수업(금) 오후 7: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김정호 담임목사

가스펠교회

1520 La Mirada Blvd, La Mirada, CA 90638
 T. (657)253-8561 www.thegospelchurch.net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양홍규 담임목사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l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팀 오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le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린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605 S Palm St #H, La Habra, CA 90631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정용담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령회기 오후 7:30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 (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 10:00-12:00 (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아침기도회 오전 8:00

장현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 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전 11:10

에스라김 담임목사

생명의바람교회

12420 Mar Vista St, Whittier, CA90602
 T. (714)683-9894 windoffec@gmail.com



주일예배 오후 1:00
 평일 저녁 6:30

임성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수요저녁기도회 오전 11:00
 금요일아침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추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주일예배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력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 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 Youth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일중보기도회 오전 10:00

류광현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김중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임계득(오정시)
 주일예배 목요 오후 8:00(천안) / 금요 오후 8:00(영어)
 파워워십 2배주 금요 오후 8:00(영어) / 4배주 목요 오후 8:00(천안)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中, 교회 내 ‘기독교 상징’ 을 ‘당 지도자 사진’ 으로 대체”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종교 공간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면서 수많은 교회에서 기독교의 상징을 공산당 지도자 사진과 당 구호로 대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이것은 중국 공산당(CCP)의 이념을 종교 관행에 통합하려는 공격적인 정책”이라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USCIRF의 보고서는 “교회에서 십자가와 종교적 이미지가 제거되고 시진핑 주석과 고(故) 마오쩌둥 주석의 초상화로 대체된 사례가 다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는 종교적 표현이 중국 공산당의 이상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종교의 중국화’ 캠페인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당국이 교회에서 십자가를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예수 그리스도나 성모 마리아 그림을 시진핑 주석의 사진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종교 자유 수호 단체인 차이나에이드(ChinaAid)는 안후이성 당국이 ‘안전상 위험’ 때문이라는 명목으로 교회 십자가를 철거하라고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당 선전을 위해 기독교 상징을 줄이는 더 큰

패턴과 일치한다고 한다. USCIRF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입구에 중국 공산당 구호를 게시하고 전통적인 기독교 가르침을 국가가 승인한 내용으로 바꾸라는 지시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장시성의 한 교회는 성모 마리아 그림을 시진핑 사진으로 대체해야 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시진핑과 마오의 사진이 십자가 구조물에 통합됐다. USCIRF 보고서는 “중국 당국은 공산당과 다양한 정부 기관이 시행하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을 통해 종교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시도한다”고 명시했다.

USCIRF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종교에 대한 제도적 통제 중심에는 종종 ‘애국종교협회’라고 불리는 7개의 국가 종교단체와 지역 지부가 있다. 7개 단체는 중국불교협회(BAC), 중국도교협회(CTA), 중국천주교애국협회(CCPA) 및 중국천주교주교협의회(BCCCC), 개신교삼자애국운동(TSPM) 및 중국기독교협의회(CCC), 중국이슬람협회(IAC)다. 텔레그래프(Telegraph)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종교단체를 더 엄격한 정부의 통제 아래 두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8년에 추진력을 얻

었다. 여기에는 중국 공산당이 승인한 종교 자료를 지지하고 공산당 교리를 반영하도록 종교적 가르침을 수정하는 것이 포함됐다.

지역 언론과 인권단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이 점차 더 널리 퍼져서 기독교인뿐 아니라 무슬림, 불교도 및 다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USCIRF 보고서는 “중국 내 종교 생활의 모든 측면이 중국 공산당 이념에 맞춰 형성되고 있으며, 국가의 정치적 의제에 어긋난다고 여겨지는 종교적 요소는 적극적으로 제거되고 있다”고 말한다. 국가 승인 없이 운영되는 지하교회와 가정교회는 폐쇄, 감시, 저명한 종교 지도자 체포를 포함한 심각한 결과에 직면한다. 게다가 18세 미만의 모든 어린이는 어떤 형태의 종교 교육도 받을 수 없다. 당국은 이러한 정책을 엄격하게 시행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많은 신자가 자신의 관행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은 발각과 처벌을 피하고자 더 작고 비밀스러운 집회를 열게 됐다. USCIRF의 아시프 마흐무드 위원은 가톨릭뉴스에이전시(CN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지하 가톨릭 신도들이 ‘종교 교리를 통제하고 종교 활동을 관리하는 정부의 권위’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협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중국 동남부 장시성에서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걸고 있는 중국인들. ©한국순교자의소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USCIRF 보고서에 대한 응답으로 조사 결과들

로 바뀐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은 발각과 처벌을 피하고자 더 작고 비밀스러운 집회를 열게 됐다. USCIRF의 아시프 마흐무드 위원은 가톨릭뉴스에이전시(CN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은 지하 가톨릭 신도들이 ‘종교 교리를 통제하고 종교 활동을 관리하는 정부의 권위’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들을 위협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USCIRF 보고서에 대한 응답으로 조사 결과들

아일랜드 의회, 증오범죄법에서 ‘혐오 표현’ 삭제

아일랜드 의회가 증오범죄법에 ‘혐오 표현’을 포함시키려는 계획에서 한 발 물러났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아일랜드 상원은 지난 2년 동안 논의해 온 ‘2022 폭력이나 증오 선동 및 증오범죄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혐오 표현’ 요소는 뺐다. 법안의 해당 부분은 삭제됐으나, 헬

렌 맥엔티(Helen McEntee) 법무장관은 여전히 기존의 증오범죄법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맥엔티 장관은 “증오를 조장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반대하는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들, 국회의원, 표현의 자유 운동가, 테슬라 CEO인 일

론 머스크(Elon Musk) 등이 포함됐다. 국제 자유수호연맹(이하 국제 ADF)은 해당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기존 법률에 따라 증오를 조장하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여전히 불법”이라며 “검열에 찬성하는 세력은 앞으로 별도의 새로운 법률 도입을 시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일랜드 국민은 국가 검열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했고 이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러한 법률은 국가 검열과 억압의 위험이 있다. ‘증오 표현’은 현대 민주주의가 표현의 자유를 가장 광범위하게 탄압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새 법안은 증오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는’ 자료(밈,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의 소지를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자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ADF는 “(법안에는) ‘증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며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는 대신, 국가가 승인한 정통성 밖에서 신념을 표현하는 이들에 대한 편협함의 가혹한 선례를 만들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이어 “인기 없는 발언은 가장 많은 보호가 필요하며,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 개인은 두려움이나 억압 없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일랜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지난 6월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은 아일랜드 국민의 25%가 증오범죄법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를 우려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바 있다. 화이트스톤 인사이트(Whitestone Insight)는 지난 3월 1,027명의 아일랜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조사를 실시했다. 아일랜드복음연맹의 닉 파크(Nick

Park) 사무국장은 CDI와 인터뷰에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신앙의 윤리적 원칙에 따라 살면 증오범죄가 발생할 위험이 없다”고 했다.

이어 “아일랜드복음연맹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믿고, 기독교인들이 그 자유를 책임감 있게 사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대리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고 은혜로운 방식으로 타협하지 않는 성경적 진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안된 아일랜드 증오범죄법에는 합리적인 신학적·학문적 토론이 범죄로 규정되지 않도록 여러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 저는 이 법안의 문구를 감안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말할 경우 법을 어길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스코틀랜드에서 4월 1일부터 새로운 증오 표현 금지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시민들이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스카이뉴스 보도화면 캡처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01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간'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잘 수 없는 상황에 높은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J1 MARTH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무신론자' 영국인, 신자 인구 수 앞질러



©Kristina Gadeikyte/ Unsplash.com

영국에서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밝히는 인구의 수가 신을 믿는다고 말하는 인구를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22년에 시작된 이 연구 프로젝트는 영국의 퀸스 대학교 벨파스트(Queen's University Belfast)가 다른 학술 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3년간의 프로그램인 '무신론에 대한 설명'(Explaining Atheism)으로, 올해 초 영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무신론 현황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프로젝트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영국인의 비율은 35.2%에서 42.9%로 증가한 반면, 신을 믿는 비율은 41.8%에서 37.4%로 감소했다. 또한, 신이 존재하는지 모른다고 답한 영국인의 비율은 2008년 21.7%에서 2018년 18.2%로 줄어 들었다. 이 결과는 영국(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이 군주가 영국국 교회의 수장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상대적 다수 혹은 대다수가 신을 믿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퀸스 대학교 벨파스트의 인지문화연구소 부소장인 조나단 랜먼 교수는 이 연구팀의 핵심 구성원 중 한 명이다.

랜먼은 4일 CP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지만, 사회화(socialization)가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랜먼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이 신앙인으로 사회화되는 정도는 주로 부모와 더 넓게는 사회로부터 받는 신앙 교육에 의해 결정된다"며 "성별, 교육, 인지

편향과 같은 다른 많은 요인들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사회화가 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다"고 말했다.

랜먼은 또한 사람들이 신을 믿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여러 요인, 예컨대 높은 지능이나 안정된 삶 등이 실제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욱이, 사람들이 지능이 높거나 교육을 더 많이 받아 무신론자가 된다는 주장(주로 무신론 활동가들이 제기하는)이나, 가정의 불화, 아버지의 부재, 반항적 욕구 때문에 무신론자가 된다는 주장(주로 보수적 종교 평론가들이 제기하는)은 연구 결과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는 "실존적 안전과 종교적 신념 및 참여의 역할에 관한 방대한 연구들이 있으며, 안전이 높아질수록 종교는 쇠퇴한다고 주장이 있다"며 "우리의 연구 결과는 이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보여주지만, 그 영향이 적고 사회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랜먼은 영국 내 사회화의 변화로 인해 무신론 인구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 "데이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출산 장려 규범'(pro-fertility norms)에서 '개인 선택 규범(individual-choice norms)'으로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다는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원 고(故) 로널드 잉글하트의 주장을 인용했다. 2019년 국가사회연구센터(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서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인구는 38%로, 약 30년간의 여론 조사 중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김유진 기자

영 성공회 성교육 수업 비판 이유로 해고된 기독교 교사

영국 성공회 초등학교 성교육 수업과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중등학교 조교 사건이 10월 2일(이하 현지시간) 항소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해당 조교인 크리스티 히스(Kristie Higgs)의 변호를 맡은 크리스천법률센터(CLC)는 "그녀의 사건은 직장에서의 기독교적 자유와, 모든 직원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성경적 원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 중 일부는 공개적으로나 사적으로 성소수자 이념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생계를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파머스중학교(Farmer's Secondary School)에 근무 중이던 히스는 2019년 자신의 이름으로 된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물을 공유했다가 해고됐다.

그녀는 게시물에서 자신의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의무적인 성관계 및 성교육 수업을 도입하고, 학교 도서관에 트랜스젠더를 홍보하는 책을 비치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게시물에 그녀의 고용주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학교는 익명으로 제기된 불만을 접수했고, 이로 인해 그녀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해고됐다.

그녀는 2020년 고용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학교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녀의 게시물이 '트랜스젠더 혐오적'이고 '동성애 혐오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항소재판소는 이 사건을 고용재판소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지만, 히스 측 변호사들은 그 판결과 지침이 표현의 자유 보호를 약화시켰다고 주장하며 이에 항소했다.

올해 초 항소법원의 엘리자베스 레이(Elisabeth Laing) 판사는 "이 사건은 직원이 자신의 신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것에 대해 적어도 세 가지 중요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사건에 대한 심리를 허가했다. 레이 판사는 "크리스티 히스의 견해가 불법적인 차별을 구성한다는 잘못된 견해와, 직원이 직장이 아닌 포럼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기반한 견해를 표현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그를 해고할 수 있는 합법적 범위도 이 의문에 포함된다"고 했다. 심리를 앞두고 히스 여사는 "기독교인 직원과 부모가 두려움이나 침묵 없이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어떤 부모도 지난 5년 동안 내가 겪은 일들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그녀는 "내게는 이 위험하고 반기독교적인 이념이 영국성공회 학교에 도입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협이다. 나는 이 일이 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다른 어떤 부모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내 게시물은 경고였고, 지난 5년 동안의 논쟁에서 일어난 일은 대부분 내 지적을 입증했다. 트랜스젠더 이념과 극단적인 성교육은 어린이에게 해롭고, 학교에서는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특히 기독교 초등학교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영혼의 섬 내적치유 영성집회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 월-금 오후 7:30
평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며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내세대에 오전 9:15) 새벽예배 (말론인) 01:20
3부예배(자세대에) 오전 11:30 (화-토) - 오전 6:0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회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부터 시작하며, 이만(2세)부터 시작하며, 선교명령을 순종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Olympic & Egan 교차로)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써니김 담임목사
금요일잠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일(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2:00 엘리야 김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박은성 담임목사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1부예배 오전 7:30 분당 CMC 중교동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분당 CMC소방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분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0 비전센터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C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18 수요일새벽기도회 오전 10:00 분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466-1234 Email: omcco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김일형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강지원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삼이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김재연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영아) 오전 10:0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이수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6: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교회 서사라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총동부 주일 오전 11:00 김창섭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교동부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말론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고광선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교동부 오전 10:50 토요일 새벽예배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 (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한현종 담임목사
중교동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락부환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동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교동부 오전 11:00

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기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허통교회 진건호 담임목사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국윤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이호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M.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교동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이항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교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항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cs.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세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방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g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dta.com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00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우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r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벨가든구구재단: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구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토),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지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2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회 오전 9:30(목)
재정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의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반인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등부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은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십만명의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월/수)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이유지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성령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명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a,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등부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美 복음주의자 중 “성경 진리 나눌 준비돼 있다” 35% 불과



미국의 한 복음주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미국 복음주의자의 대다수는 성경의 가르침을 공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신앙과문화연구소(Institute of Faith and Culture)는 라이프웨이연구소(Lifeway Research)와 협력해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를 1일(이하 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는 7월 18일부터 8월 2일까지 1,000명의 복음주의자들을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오차범위는 +/-3.3%p다.

기독교인에게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공유할 책임이 있는지” 물었을 때, 응답자의 92%가 동의했고, 6%만이 동의하지 않았으며, 2%는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35%만이 “문화적이고 화제가 되는 문제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공유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기회에 대비가 됐다”고 생각했다.

추가로 18%는 “모든 기회에 대비됐다”고, 32%는 “잘 아는 몇 가지 진리에 대해서만 논의할 준비가 됐다”고 했다. 9%는 “대부분의 기회에 대비하지 못했다”고, 5%는 “전혀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는 데 주저하는 반면, 응답자의 40%는 “교회가 성경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38%는 “강력히 동의한다”고, 10%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3%는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응답자의 37%만이 교회가 우리 문화와 성경의 가치 사이의 차이점을 논의하기 위한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한다는 데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했다. 22%는 “강력히 동의한다”고, 17%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9%는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라이프웨이연구소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대표는 “

성경의 견해를 공유할 책임을 느끼는 복음주의자 수와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는 복음주의자의 수 사이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다. 교회는 복음주의자들이 성경과 다른 견해를 가진 이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지만, 성경과 문화의 가치를 나란히 논의하는 교회는 적었다”고 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투표하는 방식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12%는 “강력히 동의한다”고, 12%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44%는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맥코넬 대표는 “일부 복음주의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변 세계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신경 쓰신다는 것을 의심하지만, 5명 중 1명 이상은 이것이 투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불일치는 이 소수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설문에 응한 사람 중 다수(38%)만이 인기 없는 주제에 관해 성경의 관점을 홍보할 기회를 “찾는다”고 인정했다. 추가로 20%는 그러한 기회를 “종종 찾는다”고, 10%는 “항상 그렇게 한다”고, 22%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7%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할 때 대다수(45%)는 “종종 성경적 견해를 공유한다”고 답했다. “자주 공유한다”는 23%, “항상 공유한다”는 9%였다. 16%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데 47%는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28%는 “강력히 동의한다”고, 14%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6%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지인에게 성경적 진리를 전파하고 싶다는 데 50%는 “강력히 동의한다”고, 5%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3%는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윤준 기자

예수 드라마 ‘선택받은 자’, 600개 언어로 번역 추진

기독교 비영리단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다룬 유명 드라마 ‘선택받은 자(The Chosen)’를 전 세계 600개 언어로 번역할 계획이라고 크로스워크닷컴이 보도했다.

미국 성경 번역 단체인 컴앤씨(Come and See)의 대표 스탠 얀츠는 최근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얀츠는 “성경 번역 기관들의 연합인 ‘에브리 트라이브 에브리 네이션’(Every Tribe Every Nation)의 목표는 2023년까지 성경을 전 세계 모든 언어, 약 6,000개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라며 “그때쯤이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적어도 신약성경을, 약 95%가 성경 전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읽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라마 ‘선택받은 자’는 현재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됐으나, 컴앤씨는 그 7개 시즌 전체를 더 많은 언어로 번역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는 예수님과 그가 택하신 제자들의 삶을 다룬 멀티 시즌 TV 시리즈를 600개 언어로 번역하고 있다. 이는 TV 프로그램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다. 엄청난 도전이지만, 그 과정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번역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로 그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선택받은 자’가 현지 언어로 번역된 이야기를 소개했다. 얀츠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기독교인으로, 아마도 영어로 ‘선택받은 자’를 시청한 후 마다가스카르 언어인 말라가시로 번역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 같다. 마다가스카르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인구가 2,500만에 달한다. 대통령은 ‘이 작품이 말라가시어로 번역되면 공공장소에 상영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그 결과, 마다가스카르 전역에서 이 드라마가 상영됐다. 감독과 고아원에서, 공중파 TV에서도 상영됐다. 화면이 설치된 트럭이 마을을 돌며 보여주기도 했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이 작품에 영향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전국적으로 축하 행사가 열렸고, 이 번역 프로젝트를 기념하는 광고판이 곳곳에 설치됐다. 결국 이는 ‘선택받은 자’(작품)가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네 번째 시즌이 방영 중인 ‘선택받은 자’는 역사상 가장 큰 클라우드펀딩 텔레비전 프로젝트다. 이 드라마는 5억회 이상 스트리밍됐으며, 시즌1이 방영된 이후 1억 8백만 명 이상이 시청했다.

김유진 기자

LA 동부 지역

파키스탄 17세 기독교인, 무슬림 고용주에 강제 개종 · 구금당해



17세 기독교인 소년 삼순 자베드. ©CDI-MSN 제공

파키스탄의 가스 회사에서 일하는 한 17세 기독교인 소년의 고용주가 그 소년을 이슬람교로 강제 개종시키고 불법적으로 구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파키스탄 펀자브주 셰이쿠푸라구 바드루 미나라 마을의 벽돌 가마 노동자인 여성 사미나 자베드(Samina Javed)의 아들 삼순 자베드(Samsoon Javed)는 지난해 11월부터 우스만 만주르(Usman Manzoor)가 소유한 액화석유가스(LPG)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삼순의 부모는 “우스만의 동생인 우마르는 지난 7월 자신의 매장에 삼순을 고용했고, 우리는 곧 그의 행동에 변화가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CDI와의 인터뷰에서 “삼순은 우리와 형제들을 피하기 시작했고, 집에 있을 때는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를 걱정했지만, 우리가 계속 재촉해도 그는 우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9월 삼순이 직장에서 돌아오지 않아 그의 개종 사실을 알게 됐다. 삼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마르의 매장에 갔는데, 그는 우리 아들이 무슬림이 됐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했다. 충격을 받은 우리는 우마르에게 아들을 만나게 해 달라고 간청했으나, 그는 이를 거부하고 우리에게 떠나라고 했다”고 전했다.

지역교회인 브레더런교회(Brethren church)에 다니는 사미나는 우마르가 며칠 동안 매장을 비운 후 아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그녀는 “삼순은 우리가 개종에 대해 물었을 때 침묵했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가 두려워하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분명했다. 아들은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했고, 우마르가 우리를 보면 화를 낼 것”이라고 했다. 사미나는 만남 이후 접촉을 통해 만주르 형제가 삼순을

이슬람 영적 지도자(피르)에게 데려갔으며, 그곳에서 그가 개종하라는 압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삼순이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두 형제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보았다. 마치 그가 그들에게 위협을 받는 것 같았다. 그가 그들의 구금에서 벗어난다면 진실을 폭로할 것”이라고 했다. 가난한 가마 노동자인 그녀는 “우리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삼순의 개종 주장으로 인해, 지역 무슬림이 우리를 도움 가능성은 없다. 누군가가 우리를 지원하더라도 아들은 실종되거나 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미나는 “우리는 이 문제가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소년이나 남성을 이슬람으로 강제 개종시키려는 시도는 드물다. 기독교와 힌두교 소녀와 젊은 여성은 자주 납치돼 이슬람 개종 및 무슬림과의 결혼을 강요받는다. 이는 종종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폭력적인 협박 아래 이뤄지지만, 당국이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인권운동가 나폴레옹 카이움(Napoleon Qayyum)은 가해자들의 책임감 부족으로 인해 강제 개종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는 CDI-MSN(모닝스타뉴스)과의 인터뷰에서 “소녀와 여성들이 거의 매일 강제 개종의 표적이 되고 있으나, 소년과 남성들이 그 같은 일을 당한다는 보고도 있다”고 했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경제적 기회를 차단하는 등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강요했다”며 “협박, 박해 또는 재정적 풍요의 약속은 소수자들에게 개종을 강요하는 데 사용된다”고 했다. 지난 1월 22일, 기독교인 아잠 마시(Azam Masih)와 그의 형제 나담 마시(Nadam Masih)가 펀자브주 시알코트구 코트리로란 지역에서 납치돼 쇠막대로 구타당하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압박받았다. 가해자들은 또한 이들이 자유의지로 이슬람으로 개종한다고 말하도록 강요해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무슬림은 신앙이 없는 비무슬림이 자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샤하다(아랍어, 우르두어로 ‘칼리마’)를 낭송하는 것만으로도 이슬람으로 개종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4년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파키스탄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7위를 기록했다. 강혜진 기자

존 파이프 목사 “영적 게임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미국 신학자 존 파이프(John Piper) 목사가 최근 영적 게임의 유혹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관해 설명하며 성경 말씀과 설교자 조나단 에드워즈를 언급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파이프 목사는 자신이 운영 중인 팟캐스트 ‘존 목사에게 물어보세요’에서 ‘반쪽 마음’과 ‘영적 게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아, 로마서 12장을 언급하며 “이 장에서 바울 사도는 영적 은사 사용을 기록하고 관대하게 기여하는 사람, 열심으로 이끄는 사람, 기쁨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말하고 있다”고 결론을 맺었다.

파이프 목사는 “변화된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뜻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쪽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이 베풀기를 원하신다면 관대하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인도하는 것이라면 열렬하게 인도를 받으라. 만약 하나님의 뜻이 자비를

행하는 것이라면 자비를 베풀라. 마지막에 하지 말고 기쁘게 행하라”며 “내가 바위에 바울의 마음에는 우리가 주님을 특정한 방식으로 섬긴다는 것이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파이프 목사는 그러면서 18세기 미국의 설교자 에드워즈 목사에 대해 언급했다. 에드워즈 목사는 영국 식민지 시대 미국에서 일어난 주요 영적 부흥 사건인 제1차 대각성 운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 파이프 목사는 “에드워즈 목사는 19살 때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70가지 결심을 기록했다”면서 “그 여섯 번째가 ‘살아 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해 살자’였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은 열정으로 차올라, ‘미지근한 반쪽 마음으로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 선행에 대한 열심, 주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을 가진 백성을 창조하셨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주일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전망예배 오후 7:30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구경모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침례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월)5:30(토)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622-2324, F. (909)622-1480/inlandchurch.org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가디노비자)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일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591-6500 sunhanchurch.com

고태형 담임목사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1부 07:30AM -1부 09:00AM -광일(월-금) 06:00AM -2부 09:15AM -2부 11:00AM -토요일 06:00AM -3부 11:00AM

글로벌선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김지성 담임목사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일예배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들뜸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장수영 담임목사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 2부 오후 12:30 EM 오후 12:30 사랑부 오전 11: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입니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8: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아기베풀) 오전11:00 영어부예배(말씀채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Youth 금요일(월) 오후 7:30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유경재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0:30 EM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8:00AM 주일 2부 9:30AM 주일 3부 11:15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수요일기도회 7:30PM 새벽예배 월-토 5:30AM 새벽기도회 월-토 11:15AM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8628 www.churcheveryday.org

손창민 담임목사

주일에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등대학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안정섭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곽덕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금요일(가디노비자)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오명찬 담임목사

주일 새벽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금요일(가디노비자)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 토 오전 6:00

OC예배 9:00(월-토) 오후 7:30 새가족 등록 오전 5:30 / 토 오전 6:00(200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최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화요일성경부 오후 7:30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 Tel. (661)219-5434 www.sammoool.org

이건창 담임목사

주일예배 목요일예배 토요일새벽

오전 10:40 오후 7:00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교목부예배 주일 수요예배 저녁 7:00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박성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 11:30 유초등부 주일 오후 11: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11:30

오전 9:45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수요일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임인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 10:15 (한국어, 스페리쉬) 주일예배 3부 오후 12:15 (한국어, 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강일진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교목부예배 오전 11:00 수요침례기도회 오후 7:0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7:00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이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송삼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정공필 담임목사

주일낮예배 오전 11:00(교회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fho@hotmail.com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이병걸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박은호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goounchurch.com

임명진 담임목사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저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junimedia@gmail.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가득...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박편,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 \$8.80
D3 5000 IU 선사한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갈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르는데 기여해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미드웨스턴, 최종원 교수 초청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16세기 급진 종교개혁, 재침례교도의 평화주의에 대한 현대적 의미 재조명

‘교회를 위하여’란 가치로 복음적이고 실제적인 신학을 지향하는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한국부는 지난 9월 23일,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밴쿠버 기독교세계관 대학원(VIEW)의 최종원 교수를 초청해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하나의 관점: 재침례교에 대한 현대 해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강연에서 최 교수는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의 급진적 개신교 운동인 재침례교의 역사와 그 현대적 의미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재침례교는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루터와 츠빙글리 등 주류 개혁자들보다 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던 운동이다. 이들은 유아침례를 거부하고 신자의 자발적 침례를 주장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재침례교의 본질이 단순히 침례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교회와 국가의 관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평화주의 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재침례교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1525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급속히 확산되어 독일, 네덜란드, 모라비아 등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동시에 격렬한 박해도 받았는데, 가톨릭과 개신교 양측 모두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1527년 작성된 ‘솔라이트하임 신앙고백서’다. 이 문서는 재침례교의 핵심 신념을 담고 있으며, 침례, 출교, 성찬, 세속과의 분리, 목회자 임명,

무기 사용 거부, 맹세 금지 등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 교수는 이 고백서가 당시 사회와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재침례교 운동이 항상 평화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1534-35년 독일 뮌스터에서 일어난 사건은 재침례교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일부 급진파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새 예루살렘’을 선포했다가 비극적 결말을 맞은 사건이다.

최 교수는 20세기 이후 재침례교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크게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1943년 해롤드 밴더가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강의한 “재침례교의 비전”이란 역사적 강연 이후, 재침례교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밴더는 재침례교가 이단인 아닌 중요한 신학적, 사회적 의미를 지닌 운동으로 재평가했다. 특히 양심의 자유, 교회와 국가의 분리, 평화주의 등 재침례교의 핵심 가치들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중요한 원칙들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최 교수는 강연을 마무리하며 재침례교가 현대 교회와 사회에 주는 함의를 강조했다. 국가주의와 민족주의에 치우친 종교에 대한 비판적 성찰,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옹호, 비폭력 평화주의의 실천 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번 강연은 종교개혁이라는 개신교 역사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이

라고 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의 소용돌이 속의 주변부에 있었던, 그러나 급진적이었던 재침례교 운동을 과거의 하나의 사건으로 치부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통찰을 얻는 계기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국가와 교회의 관계, 기독교의 사회적 역할 등 현재 기독교가 깊이 성찰해야 하는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여운을 남겼다.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는 남침례회(SBC) 산하 여섯 개의 신학대학원 가운데 하나로 북미 주류 신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ATS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미국 내 종합대학교의 학위를 인가하는 최고 인가기관인 HLC (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정식 인가되어 있다.

현재 한국부는 720여 명으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 과정 가운데 북미 최대 규모이며 최고의 질적 수준의 강의로 정평이 나왔다. 이번에 개설되는 신약학 철학 박사 외에도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교육학 박사, 교육목회학 박사, 목회학 박사 과정과 목회학 석사 과정을 비롯한 교육학, 예배학 등의 다양한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미드웨스턴 입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웹사이트(www.mbts.edu/ks)를 참고하거나 김동규 팀장(이메일: ks@mbts.edu; Tel: 816-414-3754)에게 문의하면 된다.

토마스 맹 기자

11월 11일~13일 제2차 목회자 영성 회복 기도회

미주복음방송과 감사선교재단의 공동 주최로 ‘제2차 목회자 영성회복기도회’가 11월 11일(월)~13일(수)까지 2박 3일간 감사한인교회 기도원에서 진행된다.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회복함으로써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감사선교재단의 대표 김영길 원로 목사가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기도회 참여 대상은 현역 담임목사이고 참가비는 무료이며, 2박 3일 동안 숙식이 제공된다.

11월 11일(월) 오전 11시에 감사한인교회에 모여 함께 점심 식사 후 함께 감사한인교회 기도원으로 출발하며 13일(수)에 돌아오는 일정이다. 참가신청은 11월 5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및 신청은 미주복음방송(714-484-1190)으로 하면 된다.

한편, 지난 6월 17일~19일에 감사한인교회에서 개최된 ‘제1차 목회자 영성회복기도회’에 앞서, 김영길 원로 목사는, “증기 기관차의 엔진이 힘을 잃었을 때 뒤따라오는

짐칸들을 끌고 나아가기란 불가능하듯, 기관차의 엔진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먼저 힘이 있어야 성도들의 영적 전진을 이끌 수 있다”라고 목회자 영성 기도회를 여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제1차 기도회 참여자들은 하나님과 다른 목회자들에게 마음 깊은 곳의 생각들, 사정들, 질문들을 털어놓으며, 서로를 통해 위로를 받고, 기도응답을 받고, 목회의 소명을 재확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윤준 기자



감사한인재단(대표 김영길 목사)은 지난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감사한인교회 기도원에서 현역 담임목사를 초청해 <목회자 영성회복기도회>를 개최했다.

무료 의료 박람회 통해 건강을 돌보세요!

최근 은혜한인교회 분당 로비에서 준비 위원의 2024 연세 의료 & 건강 박람회를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4 연세 의료 & 건강 박람회는 2024년 10월 12일(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은혜한인교회 분당 로비에서 열리며, 엘에이 및 오렌지 카운티 거주 한인 및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연세동문 의사 및 간호사 등 약 3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무료 의료 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혈당 및 혈압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통해 뇌졸중 위험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으며 또한, 20달러의 저렴한 비용으로 신장 기능, 콜레스테롤, B형 간염 등 5가지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피검사가 제공된다. 특히, 현장에서 우울증 및 불안증 선별 검사와 더불어 가정 상담, 아트 테라피(Art Therapy) 등의 정신 건강 프로그램이 강화되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이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돌볼 수 있는 의미가 될 것이다.

주최측은 “2024 연세 의료 & 건강 박람회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나눔의 장으로, 건강을 예방하고 돌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어 몸의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도 살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이메일: yestorrance@gmail.com)
장소: 은혜한인교회 분당 로비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주디 한 기자

사설

북한 오물풍선, 차분한 대응이 최선

북한이 띄워 보낸 오물풍선으로 인해 갖가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민가에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중단되는 등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대책이 마련이 시급하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7일까지 25차례나 오물풍선을 띄워 보냈다. 국내 각 지역에서 발견 수거된 오물풍선만 6천여 개에 달한다.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창고와 공장에 불이 나거나 건물 지붕과 차량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도 80여 건에 달한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주변 상공에서 풍선이 발견돼 총 20여 차례나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사태도 있었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우리 군은 “쓰레기 풍선으로 인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민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군이 실제 대응에 나섰다고 불만을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그런데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발표한 오물풍선에서 ‘화약피’가 발견됐다. 쓰레기를 채운 비닐봉지에 타이머를 장치해 스파크(불꽃)를 일으키게 하고 공중에서 ‘화약피’를 폭발시켜 쓰레기를 떨어뜨리는 원리다.

오물풍선에서 ‘화약피’가 발견되면서 풍선이 떨어진 곳에서 왜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됐다. 북한이 풍선에 ‘화약피’가 부착한 건 적정한 위치에 풍선이 떨어지게 할 의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설정한 시간보다 일찍 풍선이 떨어지면 지상에서 화약이 터지면서 쓰레기 봉지와 함께 대형 화재로 변질 수 있다.

실제로 오물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했다. 지난 7·8월에는 경기도 고양·파주 등지에서 오물풍선으로 인한 화재가 있었다. 지난 5일 오전 김포국제공항 인근 공장 화재와 김포공항에서 불과 2km 떨어진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일어난 불도 오물풍선 기폭장치 때문인 걸로 밝혀졌다.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화풀이로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 풍선에 가득 담아 공중에 날려 보내는 행위는 정상 국가라면 차마 할 수 없는 치졸한 짓이다. 하지만 오죽 대응할 방법이 없으면 저절까도 싶은 마음도 든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한 쓰레기 풍선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와 목적으로 만든 ‘무기’였던 셈이다.

이뿐 아니라 풍선에는 수소 가스를 채운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기구를 띄울 때는 가볍고 안전한 헬륨 가스를 쓰는 게 일반적이는데 데 가격이 싼 수소를 썼다”며 다만 수소는 스파크에 폭발하는 성질이 있어 매우 위험한 물질이라고 했다.

만약 풍선이 고압선 송전탑 등에 걸려 폭발할 경우 대형 산불과 함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물풍선 수천개를 살포하는 동안 쌓인 노하우와 데이터가 나중에는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쓰일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섰다. 만약 북한이 오물풍선에 쓰레기 대신 생화학 물질을 담아 서울 등 대도시에 떨어뜨린다고 가정할 때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오물풍선은 북한이 주민들을 동원해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보여 정교한 무기 수준엔 아직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오물풍선 하나 만드는 데 대략 10만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할 때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북한이 수억 원의 비용이 들었을 오물풍선을 계속해서 보내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중에 오물풍선을 군사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타진할 목적이 있다고 본다. 북한의 잦은 오물풍선 도발에 우리 군과 국민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노리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데 있다. 북한은 경제 파탄과 지난 여름 발생한 대규모 수해로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때에 대북방송을 듣고 걸어서 탈북하는 사례까지 발생하자 대남심리전으로 덮으려는 의도로 쓰레기 공중 투척이란 비이성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된 것이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일부에서 군이 공중격추 등 물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군이 풍선을 공중격추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2차 피해의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오물풍선이 생화학 무기로 돌변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안내 문자에 주의를 기울이며 차분하게 일상을 영위하는 게 지극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다.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 김정정은 정권의 가장 아픈 구석을 건드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국제적 망신을 사면 서까지 쓰레기를 공중에 날려 보내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풍선에 담아 보내온 쓰레기더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적나라한 북한 주민의 빈곤한 삶의 수준만이 아니다. 김정은이 북한 주민이 버린 쓰레기를 공중에 날려 보내면 보낼수록 북한 주민을 가난하고 더 비참하게 만든 나쁜 지도자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손해 보는 장사를 계속하고 할 수밖에 없는 저들의 처지가 참으로 딱할 뿐이다.

이명진 칼럼

우리가 후손을 위해 해야 할 일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은 성혁명의 폭풍에 무너진 독일의 참담한 상황을 맞고 있다.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인 가브리엘 커비는 자신의 저서 ‘글로벌 성혁명 Global Sexual Revolution’에서 독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성혁명 세력의 성애화 방법을 낱낱이 폭로하고 있다. 독일은 68혁명 이후 1969년에 동성애의 부분적 합법화와 이혼을 합법화하고, 학교에서 포괄적인 성교육을 의무화한다. 그 결과 유치원 아이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거울에 비추어 보라고 하며, 자위행위를 가르치고 있다. 1973년 포르노를 합법화하고 1976년 낙태를 합법화했다. 1977년에는 무책주의 이혼을 허용했으며, 1994년에는 동성애를 완전 합법화했다. 2001년에는 매춘업을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직업으로 인정하고, 동성혼을 허용하는 시민결합법을 제정한 후 2017년 세계에서 23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2019년에는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19세기 이후 계몽주의와 실존주의 철학사조가 대두되면서 성경비평 신학이 등장했고,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질서와 윤리적 기준의 퇴보를 이끌었다. 신학의 타락은 성윤리와 생명윤리의 퇴보를 연쇄적으로 일으켰다.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했다. 가브리엘 커비는 자신의 저서에서 성혁명 세력이 10대 청소년들을 어떤 방법으로 성애화 시키고 있는지 고발하고 있다.

〈성혁명 세력의 10대 청소년에 대한 조직적 성애화 방법〉

1. 위험하고 음란한 내용을 강의하는 자신을 ‘과학적 전문가’로 포장하여 소개한다.
2. 청소년들에게 엄격하고 동정심 없는 부모들에 대항하는, 유능하고 이해심 많은 친구이자 옹호자로 자신을 소개한다.
3. 청소년 용어와 어린이 만화에 나오는 그림을 이용한다.
4. 무절제한 성행위를 ‘그건 정상이

라’고 표현하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소개한다.

5. 다들 그렇게 한다며 동참할 것을 종용한다.
 6.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7. 한 부모 가정, 재혼 가정, LGBT 가정들이 정통가정과 같다고 표현한다.
 8. 수치심을 무디게 한다.
- 가브리엘 커비가 분석한 성애화 교육 방법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성교육강사들은 대부분 양성교육평등원을 통해 각 학교에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들이 실시하는 성교육의 수위와 내용이 세상 밖으로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을 경악하게 했다.

그동안 나의 자녀가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지 철저히 학부모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재택 수업을 하면서 음란하고 위험한 교육내용이 부모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성인들이 보기에도 민망한 내용이 아이들의 영혼을 점령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절제력과 분노조절, 분별력 등을 주로 담당하는 인간의 뇌는 만 23세 정도가 되어야 충분히 성숙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분별력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가르칠 이유가 없다. 아이들은 생소하고 처음 듣는 내용이기엔 관심이 높고, 성적 호기심만 높일 뿐이다. 이를 조기 성애화라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혁명과 포괄적 성교육의 폐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음란한 성교육을 받지 않도록 성교육 내용을 수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브리엘 커비 박사는 우리 후손을 위해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성혁명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모 세대가 나서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한다.

〈우리가 후손을 위해 해야 할 일〉

1. 성주류화(젠더화)대신 가족 중심 문화로 바꾸는 일
2.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게 하는 일
3. 아이들이 생물학적 엄마와 아빠를 가질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일
4. 포괄적 성교육을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성애화를 막는 일
5. 포르노 확산을 막기 위해 국내외적인 캠페인을 벌이는 일

2024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례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ATS, AACS 인증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이성훈 박사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M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CPU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온캠퍼스와 온라인 동시 프로그램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증
-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학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 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a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학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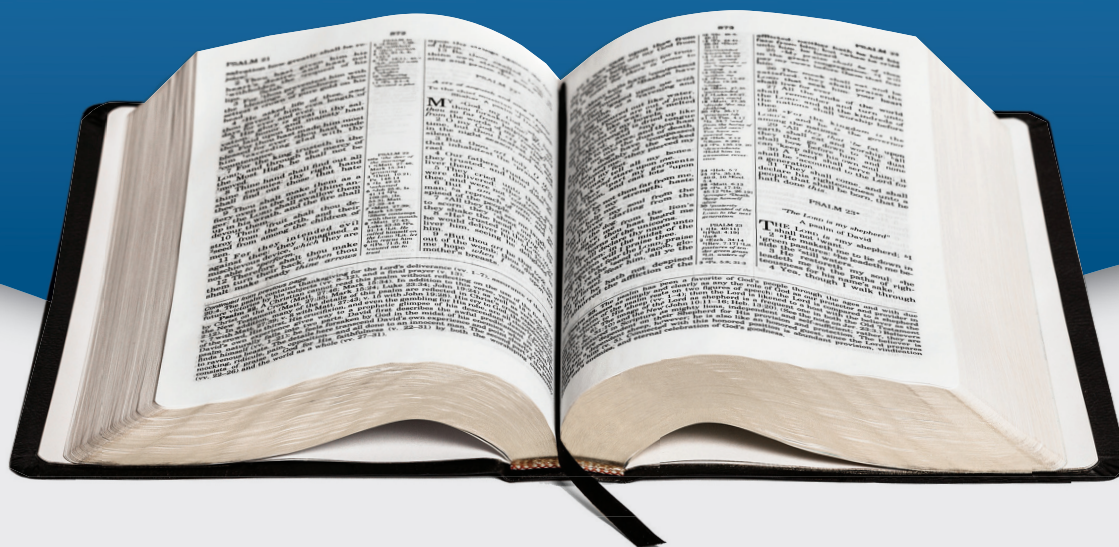
- MATS 선교학 석사
- Th.M 신학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제2기 성경 필사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실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오늘 날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신약성경 6권(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의 성경 말씀 필사를 통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지난 1기 성경필사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37명에게 전달했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승리의 열매가 맺힘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제2기 성경필사 장학생 33명이 선정되어 2024년 7월 20일부터 필사를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루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두가 필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1등



노트북

2등



아이패드

3등



에어팟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진유철 칼럼

행함의 일 순위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복음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수업을 훈련해서 한강을 건넌다고 해도 태평양은 못 건너고, 매일매일 노력하여 1cm씩 높이 될 수는 있어도 100m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과 같이 죄와 사망으로 지옥 가는 문제는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해

결이 안 됩니다.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흠도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의가 죄인인 내게 전가되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음에는 어떤 행위를 더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진짜라면, '이제 나는 자유다.' 하면서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심으로 율법의 작은 것도 이루어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명과 율법은 처음 주셨을 때부터 심판 때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설교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마5:19)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생명으로 자라나는 성숙한 아들의 삶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확언해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5:20) 시장에서 긴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고, 텃밭의 채소조차도 십일조를 드리며 24시간 율법의 행함에 매달

려 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의 의가 나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에 열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내게 없었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인격과 삶에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속사람이 변화되면 점차적으로 행위로까지 변화가 나타나 율법의 작은 것도 행하며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온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단기선교, 기도원 창립39주년 행사, 여러 봉사활동 속에서도 참된 제자들의 '행함의 일 순위'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롬!

구봉주 칼럼

시기와 질투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성도님들께 아주 가끔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질투가 많은 편이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질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자존감이 높은 편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무언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존경스럽고 닮고 싶은 마음이 클 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 좋겠다”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시절에 질투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크게 상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시기 질투가 많으시고,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가 시기 질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주었고 사이가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리거나 혹은 서서히 나와 멀어질 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 결국 시기와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영문도 모른 채 “왜 안 그러던 사람이 내게 저런 말을 할까? 왜 내에 대한 태도

가 갑자기 바뀌었을까? 왜 뒤에서 험담을 할까?” 고민하며, 실망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인간관계의 어두운 현실을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은 목회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의뢰로 성도님들 사이에 있는 갈등의 원인이 시기와 질투인 것을 보았습니다. 언니 동생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새로운 성도가 나타나 나와 친한 사람의 관심이 분산되면, 섭섭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제삼자에게 험담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실질적인 죄들, 뒤에서 험담하는 죄를 짓게 되고, 새로운 신자를 배척하는 죄, 믿음의 형제 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죄, 남을 미워하는 죄, 관계를 이간하는 죄 등등, 다중 복합적인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시기와 질투의 문제는 성직자들에게도 아주 흔히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같은 교회를 섬기는 동역자들 중에 담임 목회자로 청빙 받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당시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후계자라는 소문이 돈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와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다 역시 열심히 섬기시더니 하나님께서 높이시는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같이 섬기던 분이 잘 되는 것을 보니, 부러우면서

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후계자가 된다는 소문이 돌았던 분은 영어 한국어 이중 언어가 완벽한 분이셔서, 저는 그분이 후계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역자들의 반응은 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이 은사 사역에 편향된 이단적인 목회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등, 예전에 섬겼던 교회가 이단적인 교회였다는 등, 험담하기 바빴습니다. 누가 봐도 말 수가 적고, 점잖기로 소문난 분도 열변을 토하며, 험담하는 것을 보고, 저는 시기 질투는 사람의 성향까지 바꿀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자가 되었을 무렵입니다. 부목사 시절 함께 사역하던 다른 부목사님들과 너무나 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부르심이 있으실 때까지 같이 함께 하시자”고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은 매사에 수동적이고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시기 질투로 가득했고, “담임 목회자로 얼마나 버틸까?”하는 눈치였습니다. 뒤에서 “구봉주 목사님이”라고 하지 않고, “구목사님”이라며, 저를 하대하였습니다. 저는 부목사님들을 단 한 번도 하대할 적이 없는데 말입니다.

심지어는 저를 깎아내리고 오해와 거짓을 마치 사실인 마냥 소문을 퍼뜨리며 비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왜 저러실까? 내가 그렇게 잘해드렸는데”라며 섭섭했지만, 나중에 세상 일에 지혜로운 지인이 제게 “뻔한 거 아니에요? 질투예요 질투. 질투가 나서, 목사님이 잘 되면, 뒤에서 폄하하고, 꼬투리

라도 잡히면 공격하는 거예요”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당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경적으로 시기 질투는 비교의식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생겨난 인간 본연의 죄성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옛 뱀 마귀 사단이 “이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미혹했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는 “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때 매우 열등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구나”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처럼 되어야겠다”하며,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나오는 시기와 질투가 생겨난 것이고, 이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격하는 쓴 뿌리가 된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려 놓고, 우리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로 치유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로 비롯된 부정적인 말과 태도는 경계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시기와 질투를 느끼는 듯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여성이 남성보다 감성적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시기와 질투를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4 SPECIAL PROMOTION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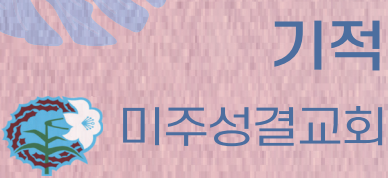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baeksong.kr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2024

LA 백송교회 영성축제

15th Victoria Lee

Praise Concert

이순희 찬양 콘서트

10/12/2024 토 오후 3:00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

백송교회 담임목사
영혼의 샘 세계선교센터 회장
백송수양관 관장
기독교 생활영성연구원 원장
전세계 찬양치유 부흥사
각종 세미나 강사

서울신학대학원 Th.D 선교학
서울신학대학원 Th.M 선교학
서울신학대학교 / 신학대학원 M.Div

도서 <복음과 영적전쟁>, <복음과 내적치유>,
<복음과 인생설계>, <복음과 가족치유>
<영혼을 살리는 찬양> 1,2,3,4,5,6 저자



기적의 현장, 변화의 현장, 치유의 현장

1st **미주 가족치유부흥회** Family Healing Revival

10/13 주일 오후 - 17 목 오전 오전 10:30 | 오후 7:30

19차 **성령 컨퍼런스** Holy Spirit Revival Conference

10/17 목 오후 - 22 화 오전 10:30 | 오후 7:30

가족치유부흥회는

가정의 문제를 영적으로 심도 있게 진단하고, 죄와 상처로 인한 가족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모든 문제를 초월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컨퍼런스는

"근본적인 치유, 진리 안에서의 자유, 성령으로 한계를 초월하는 삶"을 누리는 회복의 예비로 깊은 영성훈련에 돌입하는 집회입니다.



LA백송교회 담임
김성식 목사



불같은 성령으로

영광까지 복음을 전하자



미주성결교회

LA 백송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 Tel. 562-606-2345, 213-249-479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다행이다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12가지가 있다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12가지

닉 터커 | 김태형 역 | 좋은씨앗 | 248쪽 | 17,000원

이 책은 신론의 핵심 주제를 다루면서 신학, 역사, 철학, 변증학, 문학, 예술을 아우르는 폭넓은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독자들은 단순한 교리 학습을 넘어 삶의 실제적 적용에 이르는 풍성한 신앙의 여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신학적 깊이를 바탕으로 목회적 적용을 겸비하여 독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교리를 회복하고, 그분의 진리를 실제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깊은 감화를 경험하며, 그분의 진리와 사랑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복잡한 것을 설명할 때, 최대한 눈높이에 맞춰 여러 가지 예시와 납득할 만한 개념을 가지고 이리저리 설명하려 애쓴다. 어른이라고 모든 일을 다 이해하는 건 아니다. 때론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일도 있음을 아는 것뿐이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다만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과 행하신 일을 사람의 언어로 계시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때로는 모순처럼 보이고 이해하기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무지하고 그분을 불신한 상태로 그저 믿기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말이다. 다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알고 믿으면, 우리는 초월적인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더욱 깊이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닉 터커는 영국 성공회 목사로, 브라이튼 앤 호브에 있는 비숍 해닝턴 메모리얼 교회 목회자로 섬기고 있다. 국내에 소개된 책은 이번에 나온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12가지>가 전부이지만, 이 책을 통해 저자가 얼마나 성경적이 말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가르치고 있는지, 그 교훈이 실제 신자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충분히 알게 했다. 책의 부제는 '그 진리가 우리의 불면증 완화에 도움을 주는 방식'인데, 실제로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때문에 우리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하게 하나님께 맡긴 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는 한 성도의 간증과 함

께 이 책은 시작한다. 이 책은 ①배우실 수 없고 ②놀랄 수 없고 ③마음을 바꾸실 수 없고 ④눈에 보일 수 없고 ⑤때로는 차마 못 보시고 ⑥변하실 수 없고 ⑦외로우실 수 없고 ⑧고통을 겪으실 수 없고 ⑨죽으실 수 없고 ⑩악에게 시험받으실 수 없고 ⑪거짓말하실 수 없고 ⑫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하나님을 설명한다.

그리고 이 같은 특징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은 ①잠을 주무셨고 ②학교에 가셨으며 ③육신이 되셨고 ④홀로 고통을 겪으시며 죽으셨고 ⑤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를 위해 은혜로 선택하셨다고 말한다. 저자 터커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여러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분의 무능력함을 고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 12가지를 하실 수 없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물건이나 동물, 사람은 타고난 속성에 갇히고 제한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어디에 제한되거나 누군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성품을 지키시고 벗어나지 않으시는 것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그리고 성경이 설명하는 문자 그대로 보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더 작게 보이게 하거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이게 하고 그분께 의뢰하는 우리를 더 평안하고 안심하게 만든다. 가령 하나님이 배우실 수 없다는 것은 그분의 지혜가 완전하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 이걸 미처 몰랐네'라고 하실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배울 필요가 없는(다른 말로 모든 것을 이미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온전히 둘 수 있다. 한편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실 수 없다는 말 때문에, 그분은 완전



©Pixabay

히 초월적인 분으로 우주 저 너머에 홀로 자존 및 자족하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지구 어딘가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저자 터커가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룬 부분은 그래서 정말 감동적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으로서 우리를 아시고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을 친히 경험하시고 또 이기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진실

로 동정하실 수 있다. 책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는 12가지>이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는 하나같이 저자가 발견한 항목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욱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한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욱 영광 받으시고 친히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명희 권사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지만 하나님은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날 때까지 기다리시며, 앉습니다. 사도행전 17:27

They would seek him and perhaps reach out for him and find him, though he is not far from any one of us. ACTS 17:27

2024. 10. 4. H

龍山 龍山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거주 삼성 통운(주)

<p>귀국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p>귀국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p>시내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p>타주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새애틀, 밀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p>자동차운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p>해외이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지옥에서 온 판사> (1)

지옥에서 온 판사: 속은 추악하지만 겉은 아름다운 마귀·악마의 본질



인간 세계로 잠시 추방된 지옥의 재판관이자 악마 유스티티아의 이야기를 다룬 판타지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

저승 재판관과 최고신 수하 설정 기독교 가르침과 정면으로 상충 한국 저승 신화에는 잘 들어맞아 마귀와 악마에 대한 성경 가르침 반대로 비틀수록 작품 인기 높아 은연중에 악하지 않단 인식 확산

악마에 대한 지식: 성경이 아닌 허구문학으로부터 유래된 악마의 이미지

지난 9월 21일부터 방영 중인 SBS 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는 지옥에서의 불성실한 판결 태도 때문에 인간 세계로 잠시 쫓겨난 정의의 여신 유스티티아(Justitia, 박신혜 분)의 활약을 그린 판타지 연속극이다.

특이한 점은 작중 유스티티아가 인간 세계에서는 정의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지옥의 악마들 가운데 한 명이었다는 점, 그리고 인간 세계로 쫓겨난 이 악마가 여성 판사 '강빛나'의 몸에 깃들여 실제 지옥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실 세계에서도 살인자들의 형량을 정하고 집행한다는 점이다. 이 작품의 서사는 전반적으로 치밀함이 떨어지는 편이다. 범조계의 현실이 영성하게 표현된 데다, 인물 간 관계 역시 억지스럽게 형성되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빠른 서사 전개와 주인공 강빛나의 악독한 나르시시스트 연기가 어우러져, 온갖 판타지 요소로 점철된 서사의 허술함과 개연성 부족을 가려주는 식으로 작품의 매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작품의 주요 감상 포인트가 경찰 수사와 사법부 재판 과정의 현실성과 개연성이 아닌 만큼, 서사의 허술함이 작품 인기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 작품의 감상 포인트는 주인공인 악마 강빛나가 얼마나 특별하고 초월적인 방식으로 악인들을 괴롭히고 살해하는지 지켜보는 데 있다. 현실의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악인들을 초자연적 힘으로 처벌하게 괴롭히고 압박해 시청자들에게 통쾌한 정의 구현의 카타르시스를 안겨주는 것이 이 드라마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다.

<지옥에서 온 판사>는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이미지의 판사 캐릭터를 선보이기 위해 로마 신화의 여신을 등장시켰지만,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지옥과 초월자들은 실질적으로 한국의 무속, 민속신앙, 그리고 불교 내세관이 혼합되어 탄생한 저승과 염라대왕 신화를 각색한 것에 가깝다. 여기에 로마 신화나 한국 민속신앙에서 찾아보기 힘든 악마라는 설정이 추가됐는데, 이는 당연하게도 기독교 교리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설정을 로마 신화에서 차용하기는 했지만, 지옥 형벌의 형량이나 재판 체계, 그리고 저승의 관료체계 같은 핵심 설정은 모두 내세 심판에 대한 한국인들의 전통 민속신앙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외 죄인의 영혼 이마에 낙인을 새기는 설정도 전근대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자주 시행되던 목형 혹은 자자형을 각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지옥에서 온 판사>가 작중 한국 민속신앙의 염라대왕 역할을 담당하는 유스티티아를 굳이 악마들 중 하나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악마들에 대해 자세히 기술한 대다수 문헌들이 성경 정경도, 외경도 아닌 르네상스 시대 일부 작가나 신학자들에 의해 쓰였다는 점이다. 즉 오늘날 대중매체에서 자주 차용되는 악마에 대한 설정들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허구적 상상으로

부터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간혹 성경 외경으로부터 유래된 내용도 있으나, 이 역시 정통 조직신학 범주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 외에도 전근대 대중문화 속 악마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악마에 대한 인식: 마귀나 악마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콘텐츠 흥행 전략

<지옥에서 온 판사>의 주인공이 저승의 재판관이면서 최고 신(神)의 수하로 일한다는 설정은 한국 저승 신화에는 잘 들어맞지만,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정면으로 상충된다.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수하로 사용하신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죽음에 이르도록 벌을 내리실 때 한 천사를 부르신 기록(왕상 22:19-23)이 있기는 하나, 이 천사는 '하늘의 만군' 구성원으로서 결코 마귀나 그의 수하라고 볼 수 없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무저갱을 지키는 직분을 맡은 천사 아블루온(계 9:11)이 등장하나, 이 역시 마귀나 그의 수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의의의 천사 중 하나다. 즉 <지옥에서 온 판사>의 악마 설정은 애초 한국 민속신앙 안에서 트릭스터 혹은 안티히어로 성격을 가진 염라대왕의 역할을 보다 돋보이게 하려고 새로 창안한 것이거나, 기독교 조직신학 외의 허구 문학으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마귀나 악마에 대한 이런 허구적 설정은 미국 TV 시리즈 <루시퍼>에서 이미 대중적 인기를 끌 수 있는 요소로 입증됐다. <지옥에서 온 판사>의 악마 강빛나 역시 <루시퍼>의 오마주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만큼 그 설정이 닮아 있다.

최고 신의 명으로 지옥에서 죄인들의 영

혼을 형벌하던 천사(혹은 악마)가 인간 세계에 적응하면서 초자연적 힘을 사용하여 범 죄를 해결해 나간다는 <루시퍼>의 서사 설정은 이미 <화유기>나 <마이 데몬> 같은 한국 판타지 드라마에서도 비슷하게 차용된 바 있다. 이런 작품들 속에서 악마 역할을 맡은 배우들은 성경에 기록된 마귀의 속성 그대로 지극히 아름답고 매력적인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힘쓴다. 원래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브라함의 종교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악인들이 추악한 형상이나 속성을 갖는 것으로 묘사된다. 성경에서도 마귀의 속성은 추한 것으로 규정되지만, 외모와 형체는 지극히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된다. 마귀는 이 아름다움을 가지고 인간을 타락의 길로 유혹하는데, 이런 유혹자로서의 속성이 마귀나 악마를 등장시키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매력을 강화하는 데 안성맞춤인 것으로 인식되는 듯하다. 그 결과 현대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마귀나 악마 캐릭터는 도저히 그 추악하고 저열한 속성을 떠올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형상으로 묘사된다.

마귀와 악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반대로 비틀면 비틀수록, 작품의 인기는 높아진다. 이런 문화적 조류는 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영적 원수이자 주적 마귀에 대한 경계심을 허무는 데 일조한다. 마귀나 악마가 허구적 존재라 생각하는 비기독교인이나 무종교인 사이에도 은연 중에 이 타락한 천사들이 생각보다 악하거나 해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을 퍼뜨리는 것이다.

현대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마귀나 악마 캐릭터는 도저히 그 추악하고 저열한 속성을 떠올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형상으로 묘사된다.

<계속>



현대 대중문화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마귀나 악마 캐릭터는 도저히 그 추악하고 저열한 속성을 떠올리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름답고 매력적인 형상으로 묘사된다.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생영 투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청빙

1974년 11월 24일 미조리 세인트루이스에 설립된 저희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며,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성도의 삶에 역사하고, 성령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저희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돌보며, 지역사회 전도와 열방 전도에 힘쓰고자 하는 참 목회자를 찾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역에 헌신할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성도들의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실 분
-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여 성도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분
-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이끌어 가실 분
-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지역사회와 열방을 향한 전도에 열정을 가진 분

지원자격

1. PCA 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3년 이상 목회 경력(부목사 포함) 있으신 분으로 55세 이하
3.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4.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 하신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졸업증명서 및 안수 증명서 각 1부
3.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소명, 목회경험, 배우자의 역할, 가족소개) 1부
4. 목회 계획서 1부
5. 최근 6개월내 설교 2편(영상 File)
6. 추천서 (추천인이 직접 우편이나 이메일로 송부)

서류제출 마감일 : 2024년 11월 14일(목)까지

제출처
주소 : The First Presbyterian Church(세인트루이스 한인제일장로교회)
(Attn : 청빙위원회) 3350 Adie Rd, St. Ann, MO 63074
e-mail : STLFKPC3350@gmail.com

기타사항

1. 제출 서류는 상기 주소 이메일로만 접수 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은 개별 통지 합니다.
3. 추천인의 연락처를 보내 주시는 추천서 또는 이메일에 기재 바랍니다.

세인트루이스 제일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http://www.stlfpkpc.org>)

“美 보수 복음주의자 5.5% 교회 예배 거의 또는 전혀 참석 안 해”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교회 출석을 조사한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보수주의자들은 ‘교회 참석률이 낮은 복음주의자’로 자신을 규정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구원 라이언 버지(Ryan Burge)는 종교 관련 섹스택(Substack Graphs About Religion)에 올린 글에서 수년간의 협동 선거 조사(Co-operative Election Study)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칭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교회 참석률을 조사했다.

그는 자칭 복음주의자라고 밝히면서 ‘전혀’ 교회 예배를 출석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이 2008년 3%에서 2023년 10%로 증가한 것을 강조했다. 그는 같은 기간 동안 자칭 복음주의자라고 밝히면서 ‘거의’ 교회를 가지 않는 응답자 비율이 13%에서 17%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분류하면, 2008년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밝힌 복음주의자의 5.5%가 교회 예배를 ‘거의’ 또는 ‘전혀’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수치는 2023년 12.6%로 증가했다. 자기 정체성이 온건한 복음주의자인 응답자 가운데 교회를 ‘거의’ 또는 ‘전혀’ 가지 않는 응답자 비율은 5%에서 8.5%로

증가했다. 교회 참석률이 비슷하게 낮은 자유주의 복음주의자라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수년간 가장 작은 변화를 보이며 3.5%에서 4.5%로 상승했다.

버지 연구원은 교회를 거의 가지 않거나 전혀 가지 않는 자유주의 및 보수적 복음주의자의 비율 격차가 2008년 2%에서 2023년 8%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현상은 종교가 아닌 정치에 의해 상당 부분 주도되고 있다는 매우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 기사는 또한 복음주의 공동체 내 교육 수준과 교회 출석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지난 2008년 대졸 복음주의자의 1.8%만이 교회를 전혀 가지 않았거나 거의 가지 않은 반면, 고졸 이하의 복음주의자의 경우 7.7%가 교회를 출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 학사 학위를 가진 복음주의자의 4.6%가 교회 참석률이 낮았고, 고졸 이하의 복음주의자의 경우 13.2%가 교회 참석률이 낮았다.

버지 연구원은 복음주의자들의 인종별 교회 참석률을 조사한 결과, 교회 참석률이 낮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pixabay.com

은 백인 복음주의자들(5.8%)이 모든 인종 집단 중에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흑인(4.8%), 히스패닉(2.5%), 아시아인(1.5%)이 뒤따랐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2023년까지 교회를 전혀 또는 거의

가지 않는 흑인 복음주의자의 비율(11.2%)이 같은 범주의 백인 비율(9.2%)을 능가했다. 교회 참석률이 낮은 히스패닉(7.4%)과 아시아인(4.8%)의 비율도 수년에 걸쳐 증가했다.

이미경 기자

ICC 보고서 “정부 부패할수록 기독교 박해 높아”

여러 국가에서 정부의 부패 수준이 높을수록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박해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공동 대응을 강조하며, 정부의 부패한 관행과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 감시 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이 이달 발표한 ‘부패와 기독교 박해’ 보고서는 부패한 정부가 소수자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기독교 박해가 방지되거나 묵인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보고서 등 여러 연구를 뒷받침하며, 부패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 심각한 기독교 박해가 발생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와 법 집행 기관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부패가 만연해, 소수자에 대한 법적 및 사회적 보호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부패로 인해 이슬람 율법의 극단주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선

한 관리들이 이를 외면하거나 묵인한다고 전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부패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기독교인의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는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했으며,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하는 종교적 살인의 70%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지역 공직자들과 극단주의 단체 간의 부패한 유착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한다. 인구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아제르바이잔이 지난해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을 군사적으로 장악한 사례도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이 지역에는 약 12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기독교인이 거주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부패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 매우 높아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는 “아제르바이잔의 경제, 특히 석유 및 가스 산업은 부패한 관행에 취약하며, 정부 관료와 기업 엘리트 간의 정실주의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시민들 사이에서도 부패에 대한 반응이 높아 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뇌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아제르바이잔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제한, 폭력 및 위협에 직면해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부패와 종교적 박

해가 국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와 기독교 박해가 경제적 안정을 저하시켜 외국인 투자를 억제하며, 이로 인해 불안정과 불신의 악순환이 국가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인도에서는 힌두 민족주의 이념과 정부 부패가 결합하여 기독교인을 포함한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결타이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는 경찰의 방조와 법적 차별로 이어지며, 이는 힌두교의 문화적 우월성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이뤄진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의 종교 활동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만연한 부패로 인해 더욱 악화되어, 그 결과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고서는 관료들이 승진할수록 부패 행위에 더 깊이 관여하며, 특히 허가받지 않은 종교 활동을 억압하는 데 힘쓴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패는 기독교인들에게 법적 절차 없이 감시, 자의적인 구금, 가혹한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또한 중동 국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국가적 통제와 부패한 언론 관행이 사회적 편협함과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ICC는 부패와 기독교 박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인권 옹호 단체와 국제 기구가 종교 박해를 지속시키는 부패한 관료들과 정권에 제재를 부과하고, 박해받는 개인에게 망명과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김유진 기자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뒹누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잘 계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식사는 잘 드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인사를 전합니다.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